

1970년대 한국현대공예의 동향 연구
A Study on Korean Contemporary Crafts in 1970 Age

곽대웅(Dae-woong Kwak)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가구·제품디자인전공 교수

이 논문은 1998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방법 및 범위

2. '70년대 현대공예발전을 위한 요인

- 2-1. 사회적 요인
- 2-2. 정책적 요인
- 2-3. 기타 요인

3. 공예행사의 확산과 작품성향

- 3-1. 기획전
- 3-2. 단체전
- 3-3. 개인전
- 3-4. 공모전
- 3-5. 기타작품활동

4. 결론

참고문헌

(要約)

1960년대의 한국현대공예계를 받아기로 볼 때 '70년대는 성장 및 개화기라고 할만한 시기이다. 정부의 문예진흥정책, 수출정책, 관광진흥정책은 공예 발전의 적극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예전공자들의 해외유학과 귀국이 빈번해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해외 공예품의 국내 전시(특히 도예전)가 빈번히 이루어져 큰 자극제가 된 시기이다. '70년대 중반기에는 국립현대미술관과 문예진흥원이 국내최초의 대규모 공예전(초대전)을 개최하여 공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특히 전국의 각 대학에 공예 및 디자인학과가 우후죽순처럼 신설되어 30대의 공예가들이 대학강단에 대거 진출하여 교육에 종사하게 되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많은 공예단체들과 대학에서 새로 배출된 신진 공예가들의 동문 단체가 많이 등장하여 활발한 전시활동을 벌여 현대공예계를 활성화시킨다. 전통공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며, 오브제적 서구공예 경향과 전통적 실용공예의 경향이 양립되어가고 수공예와 기계(산업)공예 사이의 갈등이 산업디자인의 발전 와중에서 심화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공예의 이념 정립이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가 된다. 따라서 '70년대는 한국현대공예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져 꽃이 피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Abstract)

From the middle of 1970s were founded new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craft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civilians and the authorities. First, Korean Culture and Art Foundation founded in 1973 held the 'Invitation Exhibition for the Craft Artists All over the Country' in 1974 and 1975 and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held the 'Exhibition of Modern Korean Handicraft Art' in 1975. Second, the policy emphasizing the export and tourism provided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design for export goods and souvenirs of tour. Therefore the exhibitions of such goods were held by many organizations.

In 1970s departments of craft and design were newly established in the universities so that the third generation of Korean craft was on the rise and their groups began to hold exhibitions in commercial galleries.

Reflecting on such circumstances, 1970s was the period of blossom for Korean craft while 1960s was a sprouting season.

(Keyword)

Korean Contemporary Handicrafts
 Korean Traditional Handicrafts
 Korean Industrial Crafts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의 '70년대는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이행되는 현대화의 단계를 이룬 시기이다. 따라서 문화현상의 하나인 공예도 그 진행과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에 의해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 공포되어 문화예술진흥원이 발족한 것이 '70년대 초이며, 제1차 문예진흥 5개년 계획이 '70년대 중반기부터 집행된다.

'60년대 중반기에 설치된 한국디자인센터(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의 개칭)는 '70년에 한국디자인포장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확대 발족되면서 업무의 틀을 다져가게 된다.

정부는 공예계 대학생들의 각축장이 되어 기성 공예인들에게 위면되다시피한 국전과 상공미전의 발전을 위해 '70년에 대학미전을 발족시켜 대학생들만의 작품발표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어 두 관전의 공예부문은 안정되어 간다.

소외되었던 전통공예 분야의 육성을 위한 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시회가 정부에 의해 창설('73년)되고 '77년에는 공모전을 곁들여 확대된다.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정부의 관광진흥시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도 '70년대이다. 즉 관광진흥기금의설치('72), 관광기본법제정('75), 관광사업법 제정('75)등이 이루어지게 되고 관광기념품, 토산공예품생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게 된다. 따라서 전통 한국미가 재인식되고 민예의 아름다움이 일깨워

지며 새로 발굴, 발견된 많은 유형문화재가 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예관련 무형문화재의 기능전수 및 현대화, 생활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는 시기가 '70년대인 것이다. 이에 관련된 관주도의 대형 공모전인 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가 '7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민간 주도로 '69년에 시작된 동아공예 대전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70년대의 여러 가지 정책적·사회적 여건으로 공예발전에 획기적 노력이 관과 민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는 것이다.

'60년대부터 시작된 공업입국·수출입국의 슬로건으로 대표된 경제개발 정책의 지속적인 영향과 맞물려 전국 각대학에는 공예·디자인계학과가 우후죽순처럼 신설되고, 공예인의 해외유학이 급격히 늘었으며 '60년대 국내에서 교육받은 공예·디자인 인력과 해외 유학에서 귀국한 공예인이 대학강단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기회가 확대되며 그들에 의해 결성된 수많은 공예단체가 새로 나타나게 되고, 개인전시회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것도 '70년대의 일이다.

따라서 '70년대 한국 공예계의 동향을 정확히 종합 점검해 보는 일은 '80년대의 공예 및 '90년대의 공예의 성격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며 '90년대말인 현재에도 논란이 일고 있는 현대공예의 한국성 탐색과 2000년대 한국 현대공예의 나아갈 방향 설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며 본고연구의 목적이 그러한 작업에 있는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한 국가의 공예현상이 미술로서의 공예영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고연구는 산업으로서의 공예, 공예교육,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공예는 제외하고 각종 전시행사를 통한 수공예, 미술공예에 국한하여 다루되, 현대미술공예로서의 수공예 뿐만 아니라 전승공예에 대해서 가능한 함께 다룬다. 연구방법은 공예관련 각종 기록자료(간행물, 행사팸플렛 등)에 의한 문헌연구와 본고 필자의 현장 참여경험 및 원로 공예인들과의 면담에 의한 연구를 병행한다.

2. '70년대 현대공예 발전을 위한 요인

2-1. 사회적 요인

'60년대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정책¹⁾의 성공은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루게 되고 '70년대에도 지속적인 공산품의 수출정책이 이루어져 제조기술의 발달과 함께 수출제품의 디자인 수준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디자이너의 육성이 절실하게 요청되어 각 대학에 공예·디자인 관련학과의 개설을 촉진하여 수많은 디자인 인력을 배출해 내게 된다.

경제성장 및 수출·관광산업의 육성에 따라 문화계 전반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도 '70년대의 일이다. 고미술의 발굴 및 개발, 민예의 반추 같은 회고적인 경향이 일어나고 전통미의 문제, 전통공예의 계승과 발전의 문제가 큰 관심사로 등장한다.

디자인 수준 향상의 사회적 노력은 공공기관(언론사, 한국디

자인포장센터, 대한무역진흥공사 등)에 의해 여러차례 선진국의 공예품 및 산업제품 전시회를 유치하게 되는데 그중 중요한 행사는 다음과 같다.

- 1970년 · 플라스틱가구전시회(2월/한국디자인포장센터)
 - 스위스 포스타전(10월/한국디자인포장센터)
- 1973년 · 미국현대조각도예전(7월/미국문화센터)
 - 세계우수상품전(8월/한국무역회관)
 - 스위스포스타전(10월/한국디자인포장센터)
- 1974년 · 넥타이쇼(12월/대한무역진흥공사전시장)
- 1976년 · 프랑스도예전(8월/국립현대미술관)
 - 독일현대도예전(11월/국립현대미술관)
- 1977년 · 이태리산업디자인전(5월/한국디자인포장센터)
 - 독일 「미술과 산업의 교차점」 전(4월/신문화관)
- 1979년 · 독일산업디자인전(7월/독일문화원)
 - 영국산업디자인전(10월/한국디자인포장센터)
 - 이태리산업디자인전(11월/한국디자인포장센터)
 - 한·불가구공예비교전(11월/세종문화회관전시장)

이러한 선진국의 공예·디자인전시회는 국내의 디자이너·공예디자인계 대학생·기업주들에게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는 계기가 된다.

가장 큰 관주도의 공모전인 대한민국미술전람회와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의 공예부가 양립되어 지속되면서 미술계에는 공예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깊어지며 국전에서 공예부를 제외시켜 상공미전으로 일원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일은 결국 공예와 미술, 공예와 디자인의 개념을 규명하려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²⁾

'70년 국전에서 건축·사진부문을 제외시켜 따로 전시회를 갖도록 하지만 '공예'부는 '공예미술'부로 개칭하여 존속하면서 산업공예(기계공예)를 지향하는 상공미전의 '공예미술'부와 성격을 달리하여 일품적 수공예를 지향하게 되어 현대공예의 양분된 개념이 정착되기 시작한다.³⁾

그리고 전승공예는 폐절되다시피한 과거의 공예기술에 대한 조사발굴 및 보전에만 급급할 뿐 산업 및 현대생활과 끝없이 유리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현대공예계는 전통의 소화가 미진한 채 전승공예계와 교류조차 없는 평행적 양립상태로 제각기 활동하는 과도적 현상이 지속된다.

그러나 전통공예미, 한국미에 대한 문화계의 관심은 민간 화랑들의 기획으로 고려청자·조선백자의 재현품 생산에만 머물던 전승도예계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 주게 된다. 즉 도예가와 유명화가들을 결속시켜 만든 도화(陶畵)전시회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다.⁴⁾

2)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약칭 상공미전)는 제1부 상업미술, 제2부 공예미술, 제3부 공업미술로 분야가 구분되어 있었으며, '미술'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개정하자는 학계의 건의가 있었으나 외래어라는 이유로 주저하던 상공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77년 제12회때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으로 개칭되어 '시각디자인', '공예디자인', '공업디자인'으로 각부문의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3) 건축·사진부문의 국전은 '71년부터 3년동안 별도로 개최되다가 '74년 제23회 국전에 다시 합류된다. 국전의 '공예미술'부는 이듬해에 다시 '공예'부로 명칭이 환원된다.

4) 유명화가들 동원한 도화전시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일부 미술사가

1) 한국 경제개발 5개년계획 : 1차계획('62-'66), 2차계획('67-'71), 3차계획('72-'76), 4차계획('77-'81), 5차계획('82-'86)

전통공예미, 민예미를 일깨우기 위한 유물에 대한 기획전시회도 잇달아 나타난다.

이러한 유물전시회중 민간에서 주관한 것은 간혹 상업적 목적의 전시도 없지 않았으나 대개는 여러 소장자들의 수집품을 수합한 순수한 기획전시로서 정착되며, 전통공예미에 대한 현장 및 실기 교육이 의면되어 있던 대학생들에게 좋은 학습장이 되고, 대중들의 전통공예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미 '60년대말에 동아일보사 주최로 시작된 '한국민속공예대전'의 제3부 '현대창작공예공모전'이 '70년에 독립되고 '71년부터 '동아공예대전'으로 개칭하여 매년 개최되어 신진 현대공예가들이 각종 전통공예재료와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형상성'을 추구하는 비증있는 전시회로 정착된 것은 '국적불명'의 오명까지 나돌던 한국현대공예계를 위해 매우 의의있는 일이 된다. 이 전시회는 매년 개최 때마다 주최처의 신문 및 월간잡지(여성동아)에 화보와 함께 보도되어 전통공예를 바탕으로 한 창작공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큰 몫을 하게 된다. '60년대의 공예·디자인계 해외유학생 수는 극히 적었으나 '70년대에는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공예를 전공한 후 다시 선진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공예가의 수가 현저히 증가한다.⁵⁾ '60년대 유학생들이 대개는 1년 단기연수후 귀국하나 '70년대 유학생들은 석사학위를 받고 현지에서 개인전, 그룹전, 공모전 참가 등의 활동을 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귀국후 활동(대학 강의, 전시)의 영향은 서구의 공예기법과 표현형식을 국내에 급속히 파급시키는 요인이 된다.

전례없이 많았던 선진국 디자인물의 국내전시회의 영향도 적지 않아 일부 신진공예가들에게서 서구 양식의 모방경향이 두드러지기도 했거니와 해외유학과들의 영향은 더욱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몇몇 해외유학과 공예가들은 오히려 한국의 전통공예미의 탐색과 현대적 해석에 탐입하여 국적있는 작품 연구에 몰두하기도 한다.

세차례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62~'76)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4차계획('77~'81)이 추진되고 있어 '73년 석유파동을 겪고도 사회일각에는 사치풍조가 생기고 대중들의 문화취향이 향상되어 개성있는 수공예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고

(최순우 등)의 제안으로 신세계백화점이 최초로 기획하여 주도한다.

도화작업에 참여한 화가는 김은호, 김기창, 장우성, 서세욱, 민경갑, 김화경, 이종상, 이영수, 김원, 김종하, 김창락, 김홍수, 김태, 김형근, 남관, 박영선, 박창돈, 박항섭, 윤종식, 이충근, 이항성, 장리석, 장육진, 정환섭, 조병덕, 최영립, 홍종명, 황유업 등이며, 도예가는 권순형, 김재석, 신상호, 안동오, 윤광조, 황규동, 홍종민 등이다.

5) 제1부 전통민속공예 유물전시, 제2부 전통공예기능인들의 신작전시, 제3부 현대창작공예공모전으로 구성되며, '67년, '68년에는 제1, 2부로 이루어지나, '69년에 제3부가 신설된다. '70년부터는 3부의 공모전만 가지고 '한국현대창작공예공모전'으로 개칭하고 '71년에 '동아공예대전'으로 다시 개칭한다.

6) '60년대에 해외유학후 귀국한 공예가는 권순형, 김익영, 원대정(이상 미국), 정담순(일본), 변영선, 배만실, 정정희(이상 미국), 김기련(독일) 등이다.

'70년대에는 송번수(프랑스), 박승희(독일), 오순희(프랑스·미국), 이성순(미국), 정옥란(프랑스), 강찬균(이태리/석공예), 김승희(미국), 김재영(미국), 유리지(미국), 이규현(오스트리아), 이승원(독일), 주예경(독일), 신광석(미국), 오일환(미국), 윤광조(일본), 조정현(미국) 등이며, 외국에 나가 정착한 공예가로는 김태화(구명:군선), 김홍자, 유재화, 이혜선(구명:남미) 등이 있다.

조된다. 이러한 '70년대의 사회현상은 공예발달의 사회적 기반이 되며, 직업의 보장이라는 매력은 공예·디자인계의 대학 진학자를 급격히 증가시키게 된다.

2-2. 정책적 요인

'60년대 정부의 정책은 공업입국·수출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70년대는 문예진흥·관광산업육성에도 초점을 둔 시기이다.

따라서 '6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수출증대 정책에 따라 4년제 대학에 공예·디자인계열학과의 증원 및 증과가 이루어지며, 2년제 공업 및 실업계 대학(전문대학)의 신설이 속출된다. 물론 신설 전문대학은 대개가 공예·디자인학과를 설치한다. 따라서 공예·디자인 인력은 '70년대에 급격히 증가된다.

'75년에 정부의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설립 결의된 귀금속보석수출공단을 이리 수출공업단지안에 완공('76. 6)하여 다이아몬드 등 각종 보석을 가공 수출토록함으로써 미처 발전되지 못했던 우리나라 보석·귀금속공예 발전의 바탕이 마련된다.

'68년 10월 신축건물에서 업무를 개시한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70년대에 공예·디자인연구 및 진흥업무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된다.⁷⁾

그 첫사업으로 기존 상공미전과는 별도로 '우수공예품전시회'를 개최하며, 제3호까지 발행한 기관지인 '계간 디자인'을 대신하여 격월간 '디자인·포장'을 발행('71. 11)하여 본격적 디자인전문지를 탄생시킨다.

또한 정부의 수출 및 관광정책에 의해 '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가 '71년부터 매년 시행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해소, 농공병진(農工並進)의 구현 및 지역사회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정부의 중점시책으로 농가(農家)의 공산품 개발사업이 채택되어 전국 농어촌 지역의 새마을공장 건설사업과 토산품개발육성 등의 사업을 담당할 '한국농가공산품개발본부'가 '73년 1월에 발족된다.⁸⁾ 이 기관은 토산품생산 지정업체가 생산한 우수제품의 전시와 제품개발 촉진 및 수출상담을 위해 상품상설전시관을 설치하고('73. 무역회관 2층), 해외토산품특별전시회('73), 공예품업계 해외시장조사단 파견('74), '73년 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의 주관 집행 등의 업무를 개시한다.⁹⁾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문예진흥정책¹⁰⁾에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발족되어 그 산하기구로 미술회관의 전시장(안국동)을 마련하고 각종 기획전을 열게 되는데 '74년 '75년 두차례에 걸쳐 '전국공예가초대전'을 개최한다.¹¹⁾ 국립현대미술관에

7) '66년 7월에 상공부의 지원으로 서울대학교 부설 기관으로 발족한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는 '69년초에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센터'로 개명되고 '70년 5월에 '사단법인 한국포장기술협회'와 '재단법인 한국수출품센터'를 흡수 통합하여 '재단법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신축건물은 서울 종로구 연건동의 서울대학교 부지 300평에 지어져 '68년 10월에 준공된바 있다.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미대학장에서 총장으로 바뀌고, 소장은 서울대 미대교수인 이순석이 계속 맡는다.

8) 국제관광공사가 주관하고 내무부·교통부·상공부가 후원한 '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는 재단법인 한국농가공산품개발본부가 발족됨으로써 제3회 대회부터 주관처가 된다.

9) 농가공산품개발사업 실적보고서(한국농가공산품개발본부. '73) 9쪽

10) '72년 8월에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10월에 '문예진흥선언'이 공포되며, 제1차 문예진흥5개년계획('74~'78)이 시행된다.

11) '74년에 '공예가초대전', '75년에는 '제2회 전국공예가초대전'의 이름으로 열린다. 제1회전에는 초대작가 43명이 각각 2-3점을 출품하고, 제

서도 광복30주년을 기념하는 '75년에 한국현대공예의 중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현대공예대전'을 기획전으로 개최¹²⁾하여 그동안 판기관의 기획초대전에서 소외되어온 공예분야에 조명을 가해주기 시작한 시기가 '70년대 중반기인 셈이다. 즉 '70년대에는 공예계가 그만큼 성장했거니와 아직도 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처지에 있었다는 얘기도 된다.

문예진흥정책으로 유형문화재에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방치되다시피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발굴·보전 육성에도 더욱 적극성을 띠게 된다. 공예관련 중요 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속칭 인간문화재)의 조사·지정제도가 이미 '60년대 중반부터 시행된 것이지만 '70년대에 들어서는 새로운 종류의 발굴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기능보유자들의 정기적인 작품발표의 자리를 만들고 시상제도를 둔 공모전을 함께 열어 그동안 소외되어 잊혀지고 있던 전승공예계를 독려하게 된다.¹³⁾

또한 '70년대에는 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해외여행이 좀더 자유스러워져 공예인들의 해외유학도 빈번해질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개인작품전시회도 '60년대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한다.

정부기관의 주선으로 한국현대공예품이 대량으로 해외에서 전시를 하게 된 것도 '70년대에 비롯된다. 즉 '77년 봄에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의 주선으로 한국미술협회이사회가 선정한 목공예가 11명의 작품 22점이 프랑스에서 열린 '나무와 인간-세계의 공예'전에 출품되고 출품작가 2명이 현지에 파견된다.¹⁴⁾ 같은해 5월에서 이듬해 6월까지 일년간에 걸쳐 '한국공예품 유럽순회전'이 문화공보부 해외공보관의 주선으로 8개국에서 이루어진다.¹⁵⁾ 이 전시회에는 조선조식 사랑방을 꾸미기 위한 옛가구와 각종 옛사랑방 용품 50여점과 무형문화재 제10호 기능보유자 김봉룡의 나전칠기 15점, 무형문화재 제22호 기능보유자 김희진의 매듭작품 21점, 광주·이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백자 12점 등이 전시된다. 우리나라 재래공예의 우수함을 소개하고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데 목표를 둔 것이다.

정부는 '76년 가을에 미국독립 200주년 축하선물로 성덕대왕신종 규모로 주조한 '우정의 종'을 미국 샌페드로시의 해변에 신축한 종각과 함께 기증한다. 이 종은 현대에 우리나라에서 주조한 최대 크기의 금속공예품이 된다.¹⁶⁾

2회전에는 초대작가 60명이 각 2점을 출품한다.

12) 초대작가 100명의 작품(1인 2-3점 출품)이 '75년 7월 9일에서 27일까지 덕수궁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된다.

13)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이 주최한 이 전시회는 '73년 11월에 처음 개최되고 시상제도는 없었으나 '77년 제2회때부터는 시상제도(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공보부장관상, 특별상)를 두고 매년 개최하게 된다. '80년(제5회)부터는 '전승공예전'으로, '86년(제11회)부터는 '전승공예대전'으로 개칭된다.

14) Le BOIS et l'HOMME('77. 2. 17~3. 13, 오르리공항 서관청사 특설 전시장) 프랑스 국영방송, 파리공항 공동주최의 세계목공예전시회. 세계 22개국이 전후 2차로 나누어 참가. 한국은 그리스, 이탈리아, 남아연방, 페루, 튀니스, 유고슬라비아, 알제틴, 호주와 후기에 참가하며, 비국전출신작가로 광대웅과 국전출신작가로 최승천이 선발되어 현지에 파견된다.

15) 네덜란드(헤이그), 덴마크(코펜하겐), 이탈리아(로마), 스웨덴(스톡홀름), 노르웨이(오슬로), 독일(슈투트가르트), 오스트리아(비엔나), 프랑스(파리)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정부의 문화·관광정책에서 비롯된 일들로 볼 수가 있다.

2-3. 기타 요인

'70년대에는 그동안 부족했던 미술관련 정기간행물과 작품집 등 서적의 발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70년 11월에 창간된 격월간지 '디자인·포장'(한국디자인포장센터 발행)을 비롯하여 '월보 문예진흥'('74.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발행), '계간미술'('76. 중앙일보사 발행), 월간 '디자인'('76. 오미출판사 발행), 격월간 '꾸밈'('77. 토탈디자인 발행), 월간 '미술과 생활'('77. 미술과 생활사 발행), '문예년감'('7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발행), '한국미술년감'('77. 한국미술년감사 발행) 등의 정기간행물이 등장하며, 국내 최초의 개인작품집인 '일사 김봉룡작품집'('76. 동아일보사 발행)과 최초로 현대공예사를 다룬 '한국현대미술사(공예)'('75. 국립현대미술관 발행)¹⁷⁾가 발행된다.

또한 공예·디자인전문화랑이 '70년대에 등장되어 창작공예작품발표의 장소로서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공예의 발전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비록 금속공예 전용의 화랑이었으나 한국 최초로 개장된 공예전문화랑은 '71년 1월에 서울의 관훈동에 개관한 '도라장'화랑이다.¹⁸⁾ 이 화랑은 독일에서 칠보공예진공을 한 김기린이 마련한 것이며 1층에 화랑을, 2층에 작가의 칠보공방을 두고 만 4년간 운영하다가 '75년부터 공방만을 운영하게 된다. 칠보공예공방의 개설도 이것이 한국 최초가 되는 것일 것이다.

또 토탈디자인사 신축사옥을 서울 이화동 4거리에 둔 건축가 문신규는 1층에 '한국 디자인 전시관'을 '76년 4월에 개설하고 개관기념전으로 '한국청년공예작가초대전'을 개최한다.¹⁹⁾ 이 전시관에서는 1년간 수차례의 기획전(가을옷감패턴디자인전, 나전칠기전, 공예특별초대전 등)과 개인초대전(황종래, 최승천, 김승희)이 열려 처음부터 본격적인 공예·디자인전문화랑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3. 공예행사의 확산과 작품성향

2-1, 2-2에서 이미 거론된 공기관 및 민간에 의하여 개최된 중요 기획전, 공모전에 대해서와 '70년대 이전에 창립되어 '70년대에 지속된 공모전 및 단체전에 대해서는 약술하고 '70년대에 신설된 것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기획전(초대전·특별전), 공모전, 단체전, 개인전, 기타 작품활동으로 구분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3-1. 기획전

16) 기증식 : 10월 3일, 종의 제작기간 : '75. 12. 3~'76. 6. 16, 종의 총고 367, 두께 20, 구연지름 227cm, 무게 17톤. 소요비용 : 3억9천만원(주종비용 1억원 포함). 종의 무늬조각 : 김세중, 종각설계 : 정인국
17) 이 책은 '75년 7월 국립현대미술관이 기획 개최한 '한국현대공예대전'의 도록을 겸하여 개회기부터 그 전시회가 개최되기까지의 한국공예의 흐름을 자료중심으로 집성 정리한 것이다. 집필자 이경성.

18) 도라장화랑은 개관 기념전시회로 '김기린칠보작품전'을 개최한다.

19) 판매가능한 작품(10만원이내 가격)으로 35명이 각각 2~3점 출품. '77년 3월 '한국디자인전시관'은 '토탈디자인전시관'으로 개명된다. (전시실 75㎡, 접견실 25㎡, 휴게실 6㎡)

- 1970년 · 현대한국도예전(8월/신세계화랑)
 1972년 · 한국현대도예작가초대전(11월/신세계화랑)
 1973년 · '73 굿디자인전-도자기(12월/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장)산업체 제품을 심사하여 GD마크를 부여함.
 1974년 · 한국현대미술수작(秀作)전-도예부문(4월/신세계 미술관) 초대작가; 강수화, 권순형, 김석환, 원대정, 이부용, 정담순, 황종구, 황종래
 · 원로작가초대전(12월/국립현대미술관) 공예부문 초대작가; 강창원, 김봉룡, 박성삼, 이순석
 · 공예가초대전(11월/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초대작가 43명(금속5, 도자11, 목칠11, 초경1, 염직 6, 자수6, 석3)작 3점 출품²⁰⁾
 1975년 · 여류도예전(1월/신세계미술관) 초대작가; 김수정, 김정숙, 김진우, 서동희, 손정리, 유혜자, 이경희, 장진, 조정현, 황종래
 · 한국현대공예대전(7월/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100명(금속8, 도자24, 목칠29, 초경2, 염직17, 자수 13, 석7)작 3점 출품²¹⁾
 · 제2회 전국공예가초대전(12월/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초대작가 60명(금속9, 도자19, 목칠13, 초경2, 염직8, 자수5, 석4)작 2점 출품²²⁾
 1976년 · 한국청년공예가초대전(4월/도탈디자인전시관) 초대작가 35명(금속6, 도자11, 목칠12, 염직5, 유리1)작 3점 출품²³⁾

2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최, 문화공보부 후원, 미술회관 4차기획전 초대작가 ; 금속·김기련, 김교만, 김지희, 이혜숙, 최현철 / 도자기·강수화, 권순형, 김석환, 김재석, 원대정, 윤광조, 이부용, 임무근, 정담순, 조정현, 황종래 / 목칠·강창원, 광대용, 김덕겸, 김봉룡, 김태희, 박성삼, 박형철, 백태원, 임홍순, 전영순, 최승천 / 완초·곽계정 / 염직·박숙희, 백태호, 성옥희, 유강렬, 유철연, 이신자 / 석·강찬균, 이순석, 이창호 / 자수·김인숙, 김혜경, 박을복, 엄정운, 이영숙, 조정호
 21) 광복30주년기념,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초대작가 ; 금속·곽원모, 김교만, 김기련, 김승희, 김지희, 신권희, 최대석, 최현철 / 도자·강수화, 권순형, 김석환, 김수정, 김영태, 김재석, 김정숙, 김진우, 서동희, 손정리, 신광석, 신상호, 원대정, 유혜자, 윤광조, 이경희, 이부용, 이종수, 장진, 정담순, 조정현, 황종구, 황종래, 정규(작고작가) / 목칠·강창원, 광대용, 권상오, 김규식, 김근배, 김덕겸, 김봉룡, 김윤환, 김태순, 김태희, 남철균, 노용숙, 박대순, 박성삼, 박영규, 박용주, 박인숙, 박형철, 백태원, 엄광섭, 유윤진, 이동일, 임홍순, 장운우, 전영순, 최대석, 최승천, 최주경, 장기명(작고작가) / 초경·곽계정, 이덕희 / 염직·김군선, 김희진(매듭), 남상교, 박숙희, 박성삼, 박항숙, 배만실, 백태호, 서경운, 서재행, 성옥희, 유강렬, 유철연, 이신자, 이영순, 이효섭, 최광자 / 자수·김인숙, 김태숙, 김혜경, 박을복, 배명희, 송정인, 신양숙, 엄정운, 유현주, 윤숙자, 윤영숙, 이영숙, 조정호 / 석·강찬균, 김무언, 김현연, 박정인, 이순석, 정대유

2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최, 문화공보부 후원
 초대작가 ; 금속·곽원모, 김교만, 김기련, 김승희, 김지희, 신권희, 이혜숙, 최대석, 최현철 / 도자·강수화, 권순형, 김석환, 김수정, 김영태, 김익영, 김재석, 김정숙, 서동희, 손정리, 신상호, 원대정, 윤광조, 이부용, 이종수, 임무근, 정담순, 조정현, 황종래 / 목칠·강창원, 광대용, 권상오, 김덕겸, 김봉룡, 김태순, 남철균, 노용숙, 박형철, 백태원, 전영순, 최대석, 최승천 / 초경·곽계정, 이덕희 / 염직·김군선, 김희진, 박숙희, 백태호, 성옥희, 유철연, 이신자, 이영순 / 석·강찬균, 이순석, 이창호, 정대유 / 자수·김혜경, 송정인, 박을복, 엄정운, 이영숙

23) 도탈디자인사 주최
 초대작가 ; 곽계정, 광대용, 권상오, 김군선, 김덕겸, 김승희, 김영태, 김윤환, 김지희, 김진우, 김태순, 김현연, 남철균, 민영자, 박영규, 박인숙, 박형철, 서길용, 신광석, 신상재, 유철연, 이규성, 이남미, 이부용, 임무근, 장진, 전영순, 정담순, 정대유, 정영환, 정진원, 천복희, 최대석, 최승천, 최현철

- 일사 김봉룡회고전(10월/신문회관) 동아일보·동아방송 주최/39년이래의 나전철기 구작과 근작 88점을 전시
- 공예가3인특별초대전(12월/도탈디자인전시관) 초대작가; 황종래, 김승희, 최승천
- 1977년 · 염직초대전(4월/파인힐 디자인 리서치센터) 초대작가; 김군선, 박숙희, 배만실, 백태호, 서재행, 성옥희, 유철연, 이신자
- 도예가9인초대전(9월/여의도 지성화랑) 초대작가; 손정리 등 30대작가
- 여류공예작가7인전(10월/서울·리빙아트) 초대작가; 곽계정, 김군선, 김영남, 김익영, 신상순, 유리지, 한규성
- 한국현대공예우수작가초대전(12월/새로나백화점화랑) 초대작가; 이순석 등 41명
- 1978년 · 유강렬초대유작전(3월/국립현대미술관) 염색 및 판화작품 전시
- 한국현대도예전(11월/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강수화, 권순형, 김석환, 김익영, 신상호, 원대정, 윤광조, 이부용, 이종수, 임무근, 정담순, 조정현, 황종구, 황종래

이상에 열거한 기획전들외에 2-1에서 이미 거론한 많은 도화전이 있었으므로 단연 '70년대의 기획전에서는 도자공예분야가 가장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승도예가가 도자기를 만들고 이름있는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 합작한 도예작품이 대량 제작된 일은 종래에 없던 '70년대 10년간의 특이한 현상이다.

현대도예의 발전을 위한 '70년대 전기 신세계백화점의 기획초대전이 도예계를 고무한 바가 크며, 중기의 '여류도예전'은 현대도예계에 여성의 진출이 대단히 활발했음을 보여 준다. 가장 의미있는 현대도예전은 말기의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이 되겠다. 이 전시회를 통하여 '60년대에 비하여 장족의 발전을 한 현대도예의 성향을 총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된 것이다.

도탈디자인전시관의 기획전들과 리빙아트의 기획전은 가격 부담이 적은 소품들 중심의 작품판매를 목적으로 한 전시여서 공예의 대중화, 생활화 운동이 '70년대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새로나백화점기획의 '현대공예우수작가초대전'은 초대작가 구성에 의아심을 갖게한 바가 없지 않았으나 문예진흥원의 두차례 '전국공예가초대전'과 국립현대미술관의 '한국현대공예대전'은 열세에 있던 초경공예, 석공예분야까지를 망라한 것이어서 다양한 공예분야의 발전을 고무시키며 70대의 원로에서 30대의 신진에 이르기까지 전체공예계를 총망라한 초대작가 구성으로 '현재의 한국공예의 상황을 명백히 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획을 제공한 의미있는 전시회로 손꼽힌다.

청전 이상범 등 원로작가에 대한 동아일보사, 동아방송사의 기획전의 하나로 마련된 '일사 김봉룡회고전'과 국립현대미술관의 기획전인 '유강렬초대유작전'은 매우 뜻깊은 전시회이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이 공예가를 초대한 최초의 기획전인 유강렬유작전에는 국전초기에 출품되었던 염색(납염)작품이 몇 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현대 염색공예의 상황판단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유강렬의 영향이 어떠한가를 알게 한다.

3-2. 단체전

'60년대 이전에 결성되어 '70년대까지 지속된 공예단체는 하나도 없고 오직 타분야와 공예부가 함께 있는 단체로서 한국미술협회와 산미술(대한산업미술가협회), 녹미술회가 '70년대에 도 계속 전시활동을 한다. '한국미협전'은 매년 열리고 있으나 '79년 제15회 회원전의 공예분과 출품자수는 24명에 불과하며, '산미술전'의 '70년 회원전의 공예출품자는 3명(총회원 31명 중 그래픽회원 27명)뿐이었으나 '79년 제31회때는 29명으로 증가한다.²⁴⁾

'녹미술회'는 이화여대 미술과의 첫 졸업생들이 '49년에 창립한 회화그림전이었으나 '60년대부터는 자수와 염색작품이 포함되고 '70년대부터 점차 도예작품이 증가한다.

'70년대는 전례없이 새 단체가 많이 등장한다. 10년 사이에 새로 조직되어 창립전시회를 가진 단체가 62단체에 이르는대개는 대학동문들 또는 직장동료들로 구성되며, 동일 직장 또는 학연을 떠나 조직된 단체는 10여단체 뿐이다. 이 10여단체의 성격을 보면 전국규모로 회원분포를 지닌 단체는 몇되지 않고 대개 지역별 공예인단체들이다. 이는 공예활동이 서울 중심에서 지방으로 확산된 시기가 '70년대임을 증명하는 일이며, 지방대학의 공예교육 성과로도 볼 수가 있다.

학연이나 지연을 떠나 조직된 대표적인 단체는 '한국디자인협회'(그래픽, 공예, 공업디자인 종합), '공예동우회', '칠보예술회', '한국공예가회'(현재의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현대공예창작회', '한국도예가회'(현재의 한국현대도예가회), '한국귀금속연구회'(현재의 한국귀금속디자인협회)등이다. 이 가운데 '칠보예술회'는 제2회 전시회를 마친후 활동이 중지되거나 다른 단체는 매년 정기회원전을 개최한다.

이 가운데서 '70년대의 활동을 통하여 가장 주목받은 단체는 '한국공예가회'와 '공예동우회'이다. '한국공예가회'는 30대의 젊은 공예가들인 강찬관, 광대웅, 김덕검, 김지희, 박형철, 임무근, 조정현, 최승전, 최현철 등 서울대, 이화여대, 홍익대 출신들이 연합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창립전때부터 매년 새로운 주제를 갖는 전시회를 열어 주목을 받는다. 또 이들은 모두가 대학에서 공예실기 강의를 하고 있는 작가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게 되며 전국에 분포된 회원을 지닌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회원 9명이 각각 5~7점의 작품을 출품한 '74년 창립전때에는 1명만 지방거주회원이었으나 '79년의 전시참가 회원 39명 가운데 지방회원은 10명이 된다.²⁵⁾

'공예동우회'는 동아공예대전에서 대상·금상·은상·동상을 수상한 작가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창립전때부터 동아공예대전의 주최처가 매년 회원전을 열어주고 있다.

이 단체는 70대로부터 20대에 이르는 연령분포도 특이하거나와 전승공예가와 현대공예가의 혼합단체라는 점에서 주목받게 된다. 창립전에는 김봉룡(나전철), 음일천(화가), 정연수(매듭),

김영복(지승), 지순탁(도자), 김희진(매듭), 강수화, 박계정, 최갑래, 정국혜, 최대식, 김정숙, 박정석, 정영환, 윤광조, 박영규, 이영순, 강재우가 출품했으며, 매년 동아공예대전의 수상자가 회원으로 자동영입되어 회원수가 증가하나 전시출품자는 절반 정도의 회원수에 머문다.

'79년에 등장한 '한국도예가회'와 '한국귀금속연구회'는 단일영역의 공예가로 회원구성을 이루어 특색을 지닌다. 전자는 한국현대도예계의 원로로부터 30대의 대학교수 작가를 회원으로 한 비중이 큰 단체이며, 후자는 10년이상 대학강의를 하거나 귀금속 공방을 경영하는 작가를 회원으로 구성하여 학계와 수공산업계가 연합한 단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전자의 창립회원은 황종구, 원대정, 황종래, 권순형, 정담순, 강수화, 조정현, 임무근, 이부웅 등 9명이며, 후자의 창립회원은 김선봉, 김세환, 김승희(이대출신), 박종성, 박인호, 변건호, 신권희, 안운길, 오용경, 오원택, 조복실 등 11명이다.

'70년대에 지역단위로 조직된 공예단체로는 '부산디자인협의회', '경북공예가회', '부산공예가회', '충남디자인협회'가 있다. 학연 또는 직장연으로 조직된 공예단체(거의 매년 정기회원전 개최)를 모두 포함하여 창립년도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970년 · 도작가회(11월 창립전)/홍익대 공예과 도예전공 동문그룹/'79년 제7회전
- 1971년 · 녹수회(11월 창립전)/이화여대 자수와 동문그룹/'79년 제9회전
- 1972년 · 도회(4월 창립전)/서울대 응미과 도예전공 동문그룹/'79년 제8회전
- 청예회(5월 창립전)/홍익공전 공예과 동문그룹/'73년 제2회전(공예종합)
- 1973년 · 채염회(9월 창립전)/이화여대 생활미술과 염색전공 동문그룹/'79년 제6회전
- 1974년 · AD회(Advance Design. 2월 창립전)/홍익대 공예과 동문그룹/창립전 후 해체(그래픽디자인·공예)
- 온공예회(창립전)/서울여대 공예과 동문그룹/'79년 제6회전(공예종합)
- 69동인회(11월 창립전)/홍익대 공예과·도안과 '69년 입학동문그룹/'79년 제6회전(산업디자인 및 공예종합)
- 1975년 · 화경도예회(7월 창립전)/단국대 요업공예과 동문그룹/'79년 제5회전
- 도회(5월 창립전)/홍익대 공예과 도예전공 여성동문그룹/'76년 제2회전 후 해체
- 중앙공예회(새별공예회의 개칭, 9월 창립전)/중앙대 공예과 동문그룹/'79년 제5회전(공예종합)
- 군자회(9월 창립전)/수도여사대 응미과 동문그룹/'79년 제3회전(그래픽디자인, 염색)
- 운미회(12월 창립전)/덕성여대 응미과 동문그룹/'79년 제5회전(그래픽디자인, 염색)
- 질모듬회(12월 창립전)/홍익대·대학원 도예전공생 그룹
- 1976년 · 염직공예회(3월 창립전)/홍익대 공예과 염직전공 여성그룹/창립전 후 환동 정지
- 염미회(12월 창립전)/이화여대 생활미술과 염색전공 동문그룹/'79년 제4회전
- 행진동인회(창립전)/성균관대 생미과 동문그룹/'79년 제4회전(그래픽, 염직, 도자)
- 청미회(12월 창립전)/숙명여대 공예과 동문그룹/'79년 제4회전(공예종합)

24) 이 단체는 국내 최장수 미술단체로서 그래픽디자이너의 그룹으로 '46년에 창립되었으나 '60년대 말부터 공예회원을 점차 영입하기 시작하여 '79년에 총회원 82명 가운데 공예부회원은 36명이 된다.

25) 창립전 주제: 탁상용품/제2회전: 빛/제3회전: 벽과 천정/제4회전: 실내휴식공간/제5회전: 금속공예-빛, 도자공예-탁상용품, 목공예-실내휴식공간, 염직공예-벽과 천정/제6회전: 어린이와 관계있는 공예품

- **청업도에연구회**(2월 창립전)/청업도에연구원 연수생그룹/'79년 연구원 창립5주년기념전
- **한성도에예회**(창립전)/한성도에연구소 연수 주부그룹/'79년 제4회전
- 1977년 · **동미동인회**(4월 창립전)/일본 동경여자미술학교 동문그룹(회화, 자수)
- **도상회(77도에예회의 개칭. 12월 창립전)**/홍익대 공예과(2부)도에전공 동문그룹/'79년 제3회전
- **향호회**(창립전)/건국대 공예과 동문여성그룹/'79년 제3회전(직조)
- **신공예회**(12월 창립전)/신구전문대 공예과 동문그룹/'79년 제3회전(공예종합)
- **아트만회**(11월 창립전)/홍익대 공예과 동문여성그룹/'78년 제2회전(그래픽, 염색, 도자)
- **88회**(11월 창립전)/서울대 미대 단기4288('55)년 입학동기그룹/(회화, 조각, 디자인, 공예)
- 1978년 · **한양디자인회**(7월 창립전)/한양대 응미과 동문그룹/'79년 제2회전(디자인, 공예)
- **동미회(동아공예가회의 전신, 12월 창립전)**/부산·동아대 공예과 동문그룹/'79년 제2회전(공예종합)
- **목전(木展)동인회**(12월 창립전)/정수직업훈련원 목공예과 교사그룹
- **작방도우회**(4월 창립전)/ 숙명여대 공예과 도예전공 동문그룹/'79년 제2회전
- **도형회**(4월 창립전)/홍익공업전문대 공예과 도예전공 동문그룹
- **청토회**(4월 창립전)/도예그룹
- **토석회**(5월 창립전)/마산의 도예그룹
- **토벽회**(12월 창립전)/대구의 도예그룹
- **예열회**(5월 창립전)/부산공예학교 도예반 학생그룹
- **난공예회**(11월 창립전)/성신여사대 대학원 동문그룹(공예종합)
- **청예회**(2월 창립전)/상명여사대 공예교육과 동문그룹/'79년 제2회전(공예종합)
- **한나무회**(9월 창립전)/정수직업훈련원 목공예 수강생그룹
- **가을공예회**(9월 창립전)/서울대 응미과 공예전공 여성동문그룹/'79년 제2회전(도자, 금속)
- **현대공예창작회**(2월 창립전)/서울소재 미대출신 청년작가그룹/'79년 제2회전(공예종합)
- 1979년 · **한국도에가회**(현 한국현대도에가회의 전신, 5월 창립전)/원로부터 30대 도예가들의 그룹
- **유희회**(2월 창립전)/부산공예학교 염색과·도자기과·목칠과 동문그룹/(공예종합)
- **경북공예가회**(4월 창립전)/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지역 공예가그룹/(공예종합)
- **도우회**(10월 창립전)/도예작업실 동인그룹
- **현대금속공예회**(현 조형금속공예가회의 전신, 3월 창립전)/국민대 생미과 4학년 학생그룹
- **창작염색회**(4월 창립전)/여성 염색공예가그룹
- **부산공예가회**(6월 창립전)/부산지역 공예가그룹
- **청염회**(9월 창립전)/숙명여대 공예과 염색전공 동문그룹
- **행원회**(10월 창립전)/한양여전 도자기공예과 교강사그룹/(디자인, 도예)
- **도림회**(12월 창립전)/이화여대 도예과 동문그룹
- **청백도에예회**(12월 창립전)

- **한국귀금속디자인연구회**(현 한국귀금속디자인협회 전신, 12월 창립전)/공방운영 또는 대학강의 귀금속공예작가그룹
- **초가공예회**(12월 창립전)/홍익대 공예과 동문그룹(공예종합)
- **충남디자인협회**(12월 창립전)/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각디자인 및 공예가그룹

이상 '70년대 10년간에 새로 등장하여 전시회를 가진 54단체 가운데 지방단체는 7개인데 그중 4단체가 학연을 떠난 지역공예가들의 결속으로 이루어져 지방공예활동이 '70년대에 활성화되었고, '70년대 중반기부터 신생단체가 급증한 것은 이때부터 공예인구의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졌음을 알게 한다. 특히 도자기, 금속공예, 목공예, 염직공예 등 공예영역별 단체가 결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학교육에서 전공교육의 정착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3-3. 개인전

많은 단체의 탄생과 더불어 공예개인전도 '70년대에서 대단히 빈번해지는데 특히 도예 개인전이 가장 많고 염직공예 개인전이 다음 순위가 되며 '60년대에 극히 희소하던 금속공예 분야의 개인전이 급격히 증가하여 염직개인전 수에 육박한다. 특히 해외로 나가 개인전을 여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도 '70년대부터이다.

'70년대에 개인전을 가진 사람수를 분야별로 대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분야구분	국내개인전	해외개인전	비고
	작가수/회수	작가수/회수	
도자기공예	68/129	3/5	· 순회전시는 1회로 계산함. · 기타공예는 바가지(5명), 매듭(3명), 초경, 인형, 가면, 지승 등의 작품전이다.
염직공예	24/32	5/7	
목칠공예	20/27	1/1	
금속공예	19/36	5/6	
자수공예	12/17	1/1	
석공예	3/6	1/1	
기타	17/22	3/5	
계	163/269	19/26	

위의 도표에서 보면 해외에서 개인전을 가진 사람이 염직공예와 금속공예분야에 많은데 그 까닭은 그 분야의 해외유학자(거의 여성)가 많았기 때문이다.

'70년대에 갑자기 민속적인 공예의 붐이 일어나 바가지공예(표면에 그림을 음각하고 채색하여 매듭고리를 단 벽걸이)가 대유행을 하여 주부들의 취미공예로 급속히 퍼급된다.

또한 주목할 사실은 '69년에 동아일보사 주최 '한국민속공예대전'의 제3부 '한국현대창작공예공모전'(동아공예대전의 전신)에서 최고상(준대상 이덕희), '70년 제2회전에서 대상(곽계정)을 초경(왕필)공예가 연속 수상함으로써 그동안 전승적 장인공예로 머물렀을 뿐 현대공예가들에게 외면되었던 민속공예의 디자인적, 질적 수준향상에 현대공예가가 적극 개입한 성과가 나타난다. 매듭작품(제2회 금상, 제5회 대상/김희진)도 그러한 사례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다.

'70년대에 국내에서 개인전을 가장 많이 가진 공예가는 강수

화(도예, 7회), 김기련(칠보·금속, 7회), 김석환(도예, 7회), 권순형(도예, 6회), 장운우(금속, 5회), 이준희(전승도예, 5회), 원대정(도예, 5회), 황종례(도예, 5회), 김영태(도예, 5회), 김재석(도예, 5회), 이순석(석공예, 4회), 김태숙(자수, 4회)등이며, 해외전을 가진 사람은 광계정(조경, 목공예혼합, 4회. 미국, 호주), 안동오(전승도예, 3회. 일본), 이해선(염색, 2회. 미국), 오순희(염직, 2회. 미국, 프랑스), 장운우(금속, 2회. 미국), 김봉룡(나전칠기, 2회. 대만, 네덜란드), 이순석(석공예, 2회. 일본), 박수희(직조, 2회. 독일), 신상호(도예, 2회. 일본, 미국), 김기련(칠보, 하와이), 전영자(금속, 미국), 이규현(금속, 오스트리아), 강수화(도예, 일본), 박향숙(염색, 미국), 이미재(염색, 독일순회), 김희진(매듭, 일본), 김영희(인형, 일본, 미국순회), 서지민(보석장신구, 미국, 멕시코, 프랑스순회), 신상순(일본)등이다.

3-4. 공모전

'70년에 제19회를 맞는 국전과 제5회를 맞는 상공미전은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양쪽 관전의 공예부에 출품되는 작품들의 성격 구분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일면서 미술공예와 산업공예의 개념 확립에 이 두개의 관전이 중요한 몫을 하게 된다.

국전의 핵심인사들은 공예를 상공미전으로 일원화하려다가 제자리에 남겨두었고, 문교부가 지원하는 대학미전이 발족('70년)되자 대학생들의 국전출품을 점차 차단시킨다.²⁶⁾ 그러나 상공미전 공예부문은 여전히 대학생들의 수공예작품 경영장처럼 전시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그 까닭은 일반인들의 출품이 극히 저조하고 대학공예교육은 미술공예교육화되어 있었던 탓이기도 하거나 심사위원들이 국전출신 작가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이 또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이다.

상공미전의 성격에 대한 논란은 '70년대 내내 끊임없었으나 기존산업체의 상호, 상품명의 사용금지가 '72년부터 해제되고 '77년(제12회)부터 전시회명칭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로 변경사용하게 된 것은 큰 발전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제2부 공예미술의 명칭도 공예디자인으로 변경사용되기 시작한다. 즉 미술(Art)개념에서 디자인개념으로 명칭이 정착된 셈이다. '79년에 이르러서야 학생과 일반인의 출품비율이 반반에 도달하나 '아직 대량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제작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공예품이 많다는 지적은 끊임이 없다.

국전공예부는 '70년 국전개혁당시 공예부의 제외가 논의된 이래 점차 '탈공예현상' 다시 말하면 오브제화의 경향이 짙어지기 시작하여 '70년대 말에도 '공예의 이념적 파악없이 맹목적으로 기교만 다듬어 내거나 조각의 비구상부문에 견주어 단지 크기만 축소하였을 뿐 전혀 쓰임새가 없는 오브제와 같이 기묘한 형상을 드러낸 채 공예라는 이름을 빌어 전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²⁷⁾

'기계공예(산업공예)와 수공예의 중간에 끼어서 방황하는 것이 현대 공예디자인의 상황'이며 '디자인교육 자체가 어중간한 기계와 손사이에 끼어서 우왕좌왕하는 실정이다. 세련된 기계

생산을 하기에는 아직 성숙하지 않고 그렇다고 전근대적인 손재주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것도 아닌 것의 세계가 바로 오늘날 현대 디자인의 참모습인 것'이라고 지적한 이경성의 말은 '70년대의 국전과 상공미전의 경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말이다.²⁸⁾

'70년대의 공모전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동아공예대전'과 '전국관공민예품경진대회' 및 '공간대상(도예상)공모전'으로서 앞의 두 공모전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동아공예대전은 동아일보사가 '한국전통공예미의 기초를 현대화해서 실용에 적용시킨 창작공예품의 공모전을 열어서 한국공예의 중흥과 전진을 위한 오늘날의 자세를 바로 잡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개최한 공모전이다. 출발은 '69년에 '한국민속공예대전'의 제3부 '한국현대창작공예공모전'의 명칭으로 시작되어 '71년에 '동아공예대전'으로 개칭된 것이다.²⁹⁾

이 전시회에서는 초창기부터 그동안 현대공예계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던 나전칠기, 조경공예, 매듭공예, 지승공예를 발굴해 낸다. 심사위원을 미술사학자, 민속학자, 미술평론가와 원로 공예가들과 섞어 구성하여 전통공예미를 기초로 한 창작공예를 평가하는 심도를 지닌다. 가장 큰 성과는 현대공예가들이 전승공예가들과 한 목적으로 어울려 출품하는 유일한 공모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전람회 이전에는 두 분야의 공예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에 더욱 주목받는 전시회가 된 것이다.

전국관공민예품경진대회(약칭 관공민예전)는 국제관광공사와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주관으로 '71년에 창설되며 정부의 후원을 받는 관주도형 대형공모전으로서 토산품과 수출상품의 개발, 관광상품의 개발에 목표를 두고 전국의 시·도에서 예선 대회를 거친후 서울에서 본선대회가 열린다. 제1회전은 서울전시(10월)후 부산전시(11월)가 이루어진다.³⁰⁾

김수근건축연구소 운영과 월간 공간을 발행하는 공간사가 '79년에 주최한 공간대상공모전의 도예상 부문은 해를 바꾸며 개최한 제1회 회화상, 제2회 조각상, 제3회 건축상에 이은 제4회전이다. 도예기획전, 초대전이 유난히 많던 '70년대에 유일한 도예 단일 공모전이며 '70년대를 마감하면서 청년도예가들의 현대도예 수준을 점검하는 의미를 지닌 전시회이다. 그러나 대상을 보류한채 우수상(윤광조, 신상호, 한봉립), 기술상(노경조), 의장상(김기철)만을 시상하고 10명의 입선자를 낸다.³¹⁾

수출가능한 공예품의 개발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70년에 상공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주관한 '우수공예품전시회'는 성황을 이루었으나 상공미전 공예미술부

28) <디자인 포장>통권 23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5. 12) 21, 22쪽

29) '69. 6. 26~7. 7(신문회관 1층, 2층 전시실)에서 제1부 '이조시대민속공예일품전', 제2부 '한국전승민속공예전'(공묘), 제3부 '한국현대창작공예공모전'으로 구성됨. 이때는 동아일보사와 문화공보부가 공동 주최하나 '70년부터 동아일보사가 단독 주최함, '77년 제11회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가 '84년에 부활된다.

30) 내무부 공고 제25호, 교통부 공고 제132호, 상공부 공고 제6431호의 합동공고에 의하여 지역예선은 각지방장관 주관으로 열리고('71. 9. 11~25. 15일간), 본선은 서울·코스모스백화점 특설전시장(10. 11~30)에서 열린다. 제3회전('73년)부터 신설된 기관인 한국농가공산품개발본부가 주관한다.

31) 전시 : '79. 11. 1~15(공간미술관), 입선자 : 김진우, 박영란, 박종석, 신명석, 양승호, 이규선, 인병득, 장진, 최건, 한홍근

26) 제19회때는 대학생 작품을 특선에서 제외시키고, 제20회부터는 입선에서도 제외시킨다. 이는 명문화되어있지 않은 심사위원회의 목적사항으로 집행된다.

27) <예술지 권15>, 대한민국예술원(1980). 268쪽

와 성격이 같아 한번으로 끝나고 만다.³²⁾

대학생들의 경연장으로 '70년에 마련된 '대학미전'은 전국대학 문화예술축전실행위원회가 주최하고 미술대학이 있는 대학들이 번갈아 주관하여 매년 계속되나 지방대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출품수를 각 대학에 안배하는 운영제도 탓에 해가 지날수록 상공미전 등 다른 공모전에 출품할 수 있는 공예·디자인계 대학생들에게는 큰 관심을 얻지 못한다.

'73년에 처음 열린 '인간문화재공예작품전'(문화공보부 주최)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이수자들의 작품초대전이었으나 잠시 중단되었다가 '77년에 다시 열리면서 공모전부문이 추가되어 잊혀져가는 새로운 종류의 전승공예를 발굴하는 몫을 하게 된다. 이 전시회의 대통령상 수상자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되기에 유리하여 열기는 해마다 고조되어가나 출품작들의 경향이 전승적 기예에만 머물뿐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가 노출된다.

'65년 전라남도 미술전을 필두로 경기도미술전('66년), 전라북도미술전('69년), 경상북도 상공미술전('69년)이 이미 있었거니와 '70년대에는 도전(道展)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충남미술전('71년), 강원미술전('73년), 경북미술전('74년), 경남미술전('75년), 충북미술전('75년), 부산미술전('75년), 전남산업디자인전('77년)이 속속 탄생되어 매년 개최된다. 이는 제1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74~'78년)에 의한 관 주도형 전시회들이며, 이들 공모전에는 모두 공예부가 설치되어 있게 마련이어서 지역공예·디자인의 발전에 한 몫을 하는 긍정적인 면도 많으나 국전과 중앙의 상공미전(산업디자인전)이 지닌 병폐를 지방에서 재연한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기타 공모전으로는 대한산업미술가협회가 '65년부터 시행해온 '산미전국공모전'과 한국디자이너협회가 '72년부터 개최한 '전국대학생디자인공모전'이 있다.

3-5. 기타 작품활동

'60년대에 극히 희소하던 공예가의 벽화 등 환경설치물이 '70년대 건축경기를 타고 점차 증가하게 된다. 유강렬의 철판제입체벽화 '태양조'(홍익대 건물외벽, '70년), 철주조 '고배형 대로'(홍익대 신축공학관 입구, 1쌍, '70년), 도자벽화 '작품'(국민은행본점 1층 내벽, '71년), 신축 국립중앙박물관 내벽 4개처 부조도자타일벽, '장생'(신축 국회의사당 의원식당내벽, '75년)과 권순형의 도벽 '봉황문'(국립극장 4층홀, '73년), '무궁화의 승리'(중앙청 대회의실내벽, '74년), '한글문'(신축 국회의사당 후면 현관벽, '75년), '금수강산'(워커힐 호텔 로비벽, '78년), '성사'(해화동성당 내벽, '79년) 및 백태원의 목제타일벽화 '장생도'(신축 롯데호텔 1층홀 내벽, '78년), 나전칠기벽화(롯데호텔 1층 라운지벽, '78년)등이 그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공예기술이 환경조형물제작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다.

4. 결론

정부의 경제(수출)·관광·문예진흥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

는 '70년대에는 대학의 공예교육의 연륜 및 전국적 확산과 맞물려 수많은 공예가·공예디자이너를 배출하게 되고 새롭게 탄생된 많은 공모전을 통하여 수많은 신진작가들이 등단하게 된다. 기계공예와 수공예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면모를 보인 것이 '70년대 현대공예의 모습이기도 하나 점차 그 두방향의 공예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며, 관기관의 기획으로 전국공예가를 초대한 대형 공예전(전국공예가 초대전, 한국현대공예대전)은 '70년대 한국 현대공예의 정황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게 한다.

관·민이 주최하는 한국전통공예미와 민속공예미의 탐색을 가능케하는 전시회도 '70년대에 많이 이루어져 국적있는 공예를 창작하는 기풍을 조성해주며 사라져가거나 이미 사라진 전승공예의 발굴도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가 '70년대이다.

또 해외여행의 규제가 완화됨으로서 공예가들의 해외진출도 점차 빈번해지고 산업생산의 공업기술이 급속히 발달하여 공예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은 공예가 꽃피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많은 공예단체가 결성되어 연례적인 신작발표전시를 갖게 되고 개인전의 성시를 이루면서 한국의 현대공예는 시행착오를 거쳐 현대공예다운 면모를 갖추어 나아가 '70년대는 한국 현대공예의 개화기라고 할만한 시기가 된 것이다.

생활을 위한 공예의 발전과 더불어 실용기능에서의 이탈 즉 예술을 위한 공예현상이 한편으로 강세를 나타내어 공예이념의 양분화가 노출되기 시작한 것도 '70년대 한국현대공예의 특징이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예술원<한국예술지>권6~권15(1971~1980)
-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예총감>(1976)
-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예년감>1976년판~1979년판(1977~1980)
- 한국미술년감사<한국미술년감> 1977~1979년판
- 이경성<한국근대미술연구>동화출판공사(1974)
- 이경성<한국현대미술사-공예>국립현대미술관(1975)
- 이경성<한국현대미술의 상황>일지사(1976)
- 한국근대미술연구소<국전 30년>수문서관(1981)
- 김달진<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도서출판 발언(1995)
- 최공호<한국현대공예사의 이해>도서출판 재원(1996)
- 중앙일보사<계간 미술>1976. 가을호~1979. 겨울호
- 토탈디자이너사<꾸밈>1977. 1~1979. 12
- 오미출판사<월간 디자인>1976. 10~1979. 12
- 공간사<공간>1970. 1~1979. 12
- 전국대학문화예술축전실행위원회<대학미전도록>(1972)
- <상공미전도록>
- <국전도록>
- 기타 1970년대 각종 공예전시회카다록

32) 전시 : '70. 9. 21~30(한국디자인포장센터전시장). 대통령상(곽계정), 국무총리상(박석우), 상공부장관상(이경윤), 협찬기관(한국무역협회,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장상이 시상됨,